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1-4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말씀의 증인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0월 15일	10월 22일
최은숙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축복한다는 건

본문 : 고후13장

고린도전, 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결론은 약해져라였습니다. 그 두 가지의 주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답이라면 과연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자기 시선에만 머물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약함'이라는 주제를 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품고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고린도교인들을 배아파 낳은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교인들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사도바울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탕이 된 것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의 진심을 알게된 고린도교인들은 자신들이 지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데는 반드시 우리의 약함이 나타납니다.

신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겐 사랑이 나오지 않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뺏속 깊이 고백하게 될 때 비로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권세나 힘을 가진 자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약자된 자들이 설 수 있고 보금자리로 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타적 시선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교회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시선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교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교회와 함께하시길 빌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교회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의 발판으로 삼고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격려하며 축복하는 자리에 늘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